

모든 것은 다 내게서 비롯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탓이요, 하고 살면 편합니다.
순간적으로 참기 어렵겠지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한 세상일입니다.
내가 둥글어지면 남도 둥글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안과 양지명 교수, 한중일학회 최우수 연제 발표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안과 양지명 교수가 지난 4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한중일 학회에서 '양측 황반원공의 진행 예측 위한 안구 및 전신적 요인 분석(Analysis of ocular and systemic factors for predicting the progression of bilateral macular hole)' 이란 주제로 최우수 연제 발표상을 수상했다.

본 연구에서는 황반원공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황반원공에 대해 조사하여 전신질환, 특히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혔다.

양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기적인 망막 검사와 더불어 전신 질환에 대한 평가가 양측성 황반원공의 진행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치유의 소원등 달기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4일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분과 교직원들의 쾌유 발원을 위한 치유의 소원등 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자비나눔공덕회(회주 마가스님) 쪽방촌 도우미 봉사회에서 치유의 소원등 1004개를 기부하여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박완임 간호부장, 이해원 연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소원등에는 ‘환자들의 쾌유, 직원건강, 병원발전’ 등의 발원이 간절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소원등 달기를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내원객과 환자들의 건강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소원등과 함께 병원 곳곳에 치유와 희망의 등을 밝히고 있다.



종정 성파대종사 추대법회 의료지원 및 홍보부스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정신적 지도자인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가 지난 3월 30일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종단 원로 및 중진 스님,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정관계 주요인사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예하의 추대를 축하하는 행사에 의료지원 및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불교병원 홍보와 함께 사부대중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혈관센터 정경은 간호사가 축하메시지 영상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동서식품 코로나19 극복 격려 위해 커피 4,800개 기부

동서식품은 지난 4월 1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장기화되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교직원 분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커피 4,800개를 전달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직원식당에서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병원장, 임성우 한방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박완임 간호부장이 참석하여 커피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최기석 행정처장은 “힘든 시기에 고생하시는 교직원 분들을 위해 커피를 제공해 주신 동서식품에 감사드리며, 맛있는 커피와 함께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병원 발전을 위한 천흥사 동심1.3.5 기금 모연활동

지난 3월 30일 대외협력홍보팀은 천안 천흥사 정기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병원 소액기부 실천프로그램인 동심 1.3.5 기금모연을 했다.

주지 성전스님은 동국대학교병원의 발전을 발원하는 귀한 법문을 전하며, 동국대학교병원이 자비의료 실천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도들에게 권선하여 동심 1.3.5 기부 동참이 이어졌다.

한편 천흥사 주지 성전스님은 현재 BBS불교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성전입니다’ 진행과 함께 동국대학교의료원보에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다.

